지역 메아리

정읍시 보건소, 진드기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2019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2일 여수에서 개최된 '2019년 감염병 콘퍼런스 진드기매개감염병 평가'에서 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 전국 시·도와 보건소 감염병 관리 담당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는 진드기 감염병 국고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성과계획의 적정성·사업운영의 충실성과 독창성·성과달성 등의 여부를 질병관리본부가 평가했다.

앞서 시 보건소는 진드기매개감염병 비상대책반과 역학조사반을 구성한 바 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직업적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타 부서와 연계를 통한 서식지 정비·진드기 채집 등의 감염병 예방 노력을 해왔다.

이에 정읍시 보건소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심토파쇄 시연회 개최

고창군이 고품질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지력증진·토양개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심토파쇄기 시연회를 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아산면 봉덕리 밭에서 관내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심토파쇄기 시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연회는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인 국립농업과학원 장용선 박사가 그동안 연구해온 심토파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강의한 후에 복분자와 고추를 다년간 재배했던 아산면 봉덕리 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심토 파쇄는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단단해지는 토양층)을 깨는 것이 핵심이다. 경반층은 물 빠짐이 불량하고, 생육 장애를 일으키는 비독(비료 성분 축적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 장애)을 일으킨다. 이러한 악순환은 흙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작물이 자연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막아버린다.

특히 고창군의 토양은 미세한 점토성분이 많아 다짐층이 형성되기 쉬워 땅심 복원을 위해선 무엇보다 심토파쇄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심토파쇄 이후에는 바이오차(토양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반탄화숯)를 뿌려주면서 땅심을 높이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생명 살리기의 근간인 토양 살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원도심에 활력을!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

정읍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22일 '연지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인 행복한 삶터 '연지뜰'을 만드는 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점 공간에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한 것이다. 센터는 시기·연지동 사업지구 내 위치한 빈집(조곡천1길 44-1)을 임대해 보수한 후 업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만들었다.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는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의지다.

더불어, 시는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지역활동가 양성·소식지 발간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민협의체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이들은 현장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해낼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유명수 도시재생과장은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민과 공유를 통해 행복한 삶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4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총사업비 142억을 시기·연지동 일원에 집중투자해 주거복지 실현과 동시에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특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5년 주민숙원 해소 '총력'

부안군, 위도면 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가사업비 40억원 확보

부안군은 위도면 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추가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도면 치도마을은 매년 폭풍해일 및 기상이변에 따른 조위 상승과 파랑의 월파 및 해수범람으로 인해 도로시설 파손 및 주택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2017년 6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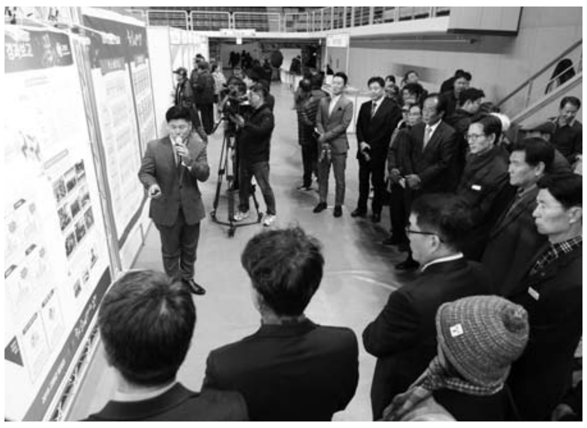
이후 2018년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36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확보해 호안정비 및 월파방지시설인 파라펫 설치(L=1210m)가 계획돼 있다.

그러나 군은 마을 앞 도로인 지방도 703호선을 확장해 원활한 차량소통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A=4480㎡)과 도로(B=4~6m) 확장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 40억원 확보에 나섰다.

군은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 사업계획변경 요청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확정 받아 추가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12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7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및 행정안전부 재해경감과를 직접 방문해 해수침수 및 도로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피력해 1년 6개월 만에 사업비 4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치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 연말까지 해수부 공유수면매립승인 절차 등을 이행한 후 오는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오는 2021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25년간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수피해 및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 '좋은일(JOB) 생기는 날!' 행사가 지난 2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군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오늘은 좋은JOB 생기는 날'

고창군 일자리 축제 성료… 31개 중소기업 참여

2019 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 '좋은일(JOB) 생기는 날!' 행사가 지난 2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군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고창군, 고창군로컬잡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 '좋은일(JOB) 생기는 날!'에는 온쿡, 삼보죽염, 연경전자 등 현장참여 24개사, 간접참여 11개사 등 총 31개 중소기업이 160여명의 근로자 채용에 나섰다.

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고창군도시재생센터,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등 15개 유관기관과 플리마켓,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채용부스에는 구직자 200여명의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이 중 6명이 현장 채용 확정, 64명은 추가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일자리 축제를 통해 기업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구직자는 좋은 직장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난 4월 개소 이후 센터를 통한 구직신청 1102명, 알선 1171건, 629명의 성공적 채용이 이뤄졌다. 당초 목표대비 200%이상 성과를 달성하면서 고창군 내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보건소, 주요업무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시민과의 소통 강화

정읍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11월 두 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시의 주요사업과 현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리핑은 고경애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고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언론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이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주요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의 '정읍시 보건기관 기능 강화'와 '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사업 네트워크 강화와 금연문화 조성', '다 함께 건강걷기', 이어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건소, 소규모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사업 분주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외식업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주하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소규모 외식업 닥터프로젝트 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영 컨설팅 사업'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 개선에 적합한 최종 5개 업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진행한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컨설팅 기관인 (주)오렌지나무시스템이 8개월 동안 진행한 컨설팅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은 영업주 포함 4인 이하의 업소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전문가가 업소의 문제점을 파악해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각 업소가 겪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업소는 메뉴개발 등을 통해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매장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 파워 블로거를 활용한 홍보 등 사업에 참여한 업소의 매출이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컨설팅을 통해 영업 애로에 대해 상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영업 마인드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업소가 소득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